

중등학교 음악 교사 중 실용음악 전공자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고찰(2022년 음악과 개정교육과 학교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정 호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comand20@naver.com

A Study on the Need for Practical Music Majors among Secondary School Music Teachers(Focusing o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and School Needs)

Ho Jung
*Dept. of Applied Music,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음악교사 집단 안에서 실용음악 전공자가 왜 필요한지를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의 전통적/현대적/예술적/실용적 가치를 함께 강조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과 창작 중심 수업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실용음악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원 확보가 쉽지 않으며, 실용음악 전공자의 교원자격 취득 경로 또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실용음악 전공 교사가 중등 음악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 적합성, 창작 및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학생 진로/진학 지도전문성, 학교 음악의 생활화 측면의 강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용음악 전공자는 동시대 학생의 음악문화와 교육과정의 방향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등 음악교육의 현실 적합성과 미래지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용음악 전공자를 위한 교직이수 경로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1. 서론

중등학교 음악교육은 최근 학생의 삶과 연계된 실제적 음악경험, 창작활동, 디지털 기반 음악 활동, 진로 탐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의 전통적/현대적/예술적/실용적 가치를 함께 다루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과 학생 주도적 창작을 강조한다. 이는 학교 음악 수업이 특정 장르 중심의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실제 음악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중등학교 음악 교사 양성 및 배치 현실은 이러한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용음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용음악 관련 대학과 고등학교가 확대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용음악 전공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결과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현장에 비전공 교사가 배치되는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누가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 된다. 실용음악 전공자의 부재는 대중음악, 싱어송라이터, 밴드 앙상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활용, 공연 실습, 음악 산업의 이해, 오디션 및 입시 지도 등 학교 현장에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요소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음악 교사 집단 내에서 실용음악 전공자가 왜 필요한지를 고찰하고 그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실용음악의 교육적 정당성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가 학생들의 감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 공동체성, 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음악의 “전통적/현대적

/예술적/실용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제시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을 통해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학교 음악 교육이 특정 장르 중심의 보존적 교육에 머무르기보다, 동시대 학생들의 생활과 접속하는 실제적이고 확장된 음악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또한 해당 교육과정은 연주, 감상, 창작의 세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창작활동을 학생 주도적 음악 구성의 핵심 과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향은 화성 진행, 코드 반주, 리드 메이킹, 즉흥연주, 작사, 작곡, 디지털 편곡 등 실용음악 기반의 교수/학습 역량이 중등학교 수업 안에서도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실용음악은 더 이상 별도의 사교육 영역이 아니라 학교 음악교육의 교육과정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의 실천적 통로로 이해될 수 있다.

2.2 학교 현장의 확대와 교사 전문성의 미스 매치

실용음악 교육 수요는 K-POP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확대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대학 실용음악과의 높은 경쟁률과 함께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의 증가를 제시하면서, 정작 해당 학교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전문 교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문제로 지적한다. 실용음악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 실용음악 비전공자가 수업을 담당할 경우 수업의 질, 실기 지도, 진로/진학 상담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연구 역시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주요 진로가 비정규직 강사 활동이나 프리랜서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공신력 있는 교원 자격 체계와 교직 진입 경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실용음악 관련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임 교사가 대부분 클래식 중심 교직과정 출신으로 구성되는 현실은 교육 현장과 전공 전문성 사이의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증 조사보다 문헌 고찰에 기반한 논의적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첫째,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둘째, 실용음악 전공자의 정교사 자격 필요성에 관한 연구, 셋째, 실용음악 전공자의 진로 및 교직 경로의 필요성을 다룬 선행 연구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실제 문제를 연결하여 중등학교 음악교사 집단에서 실용음악 전공자가 필요한 이유를 도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교육과정 적합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중등학교 음악 교사 중 실용음악 전공자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교육과정 적합성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음악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창작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통적인 음악이론 지식만이 아니라, 코드 중심 반주, 리듬 섹션 운영, 음향 장비 이해, 디지털 제작 환경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전문적으로 관련 지식을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 실용음악 전공자는 이러한 영역에서 직접적인 전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교육과정 적합성이 높다고 사료 된다.

4.2 창작 중심 수업운영 측면에서의 필요성

두 번째 이유는 창작 중심 수업 운영 역량이다. 현재 음악 교육은 학생이 단지 기존 악곡을 재현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실용음악 전공자는 작곡, 편곡, 즉흥연주, 밴드 앙상블, 보컬 디렉팅, 미디 시퀀싱 등 창작과 실연이 결합된 학습 경험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갖고 있으므로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수업이나 결과물 중심 수업을 설계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이는 창작을 핵심 축으로 제시한 개정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된다.

4.3 디지털 기반 음악 활동 대응 측면서의 필요성

세 번째 이유는 디지털 기반 음악 활동에 대한 대응력이다. 현재의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 스트리밍 플랫폼, 숏폼 콘텐츠, 홈 레코딩 환경 속에서 음악을 소비하고 생산한다. 교육과정 역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음악 활동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 편집, 루프 기반 창작, 디지털 반주 제작, 음원 분석과 같은 동시대적 활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실용음악 전공자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4.4 학생 진로/ 진학 지도 측면에서의 필요성

네 번째 이유는 학생 진로/진학 지도의 전문성이다. 실

용음악 관련 선행 연구들은 실용음악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수요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안내할 교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실용음악 전공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실기 역량, 오디션 준비, 포트폴리오 구성, 전공선택, 음악 산업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 중등학교 학생의 진로 탐색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므로 실용음악 전공 교사의 존재는 단순한 교과 수업을 넘어 진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5 학교 음악의 생활화와 학생 문화 이해 측면에서의 필요성

다섯 번째 이유는 학교 음악의 생활화와 학생 문화 이해이다. 중등 학생에게 음악은 교과서 속 대상이기 이전에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소비되고 공유되는 문화이다. 따라서 학생이 실제로 듣고 따라 부르는 음악적 언어를 이해하는 교사는 학습 동기와 수업 몰입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실용음악 전공 교사는 대중음악과 동시대 음악 문화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어 학생의 음악적 경험을 교육적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 이는 음악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한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4.6 제도 개선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실용음악 전공자의 필요성은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재선의 문제와 연결된다. 선행 연구들은 실용음악 전공자가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별도의 교직과정 신설, 실용음악 교육대학원 설치, 실용음악 기반 교원 양성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중등학교 음악교육이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려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사 전문성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실용음악 전공자의 학교 진입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구조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중등학교 음악 교사 중 실용음악 전공자가 필요한 이유를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실용음악 전공자는 첫째 교육과정의 실용적/현대적/지향에 부합하고, 둘째 창작 및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 역량을 갖추며, 셋째 학생 진로/진학 지도와 음악 산업 이해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넷째 학교 음악의 생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확인되었다.

[표 1] 실용음악 전공자 중 중등교사를 희망 조사

실용음악 전공자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483명)	60%	20%

참고문헌

[1]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Notice No. 2022-33, Appendix 12, Republic of Korea, 2022, <https://achimnara.kr/upload/2024/07/30/29d56e7b523243cc9664268afd846806.pdf>

[2] J.-H. Jo, T.-S. Cho, "For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A Study on the Need for Practical Music Teacher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5, pp. 180-18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180>

[3] H.-C. Kim, T.-S. Cho,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 pp. 379-384,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379>